'해외보다 더 저렴한 프리미엄 모스카토 다스티'

미켈레 끼아를로 모스카토 다스티 니볼레 DOCG

Michele Chiarlo Moscato d'Asti, Nivole DOCG

지역	이탈리아 〉 피에몬테 〉 아스띠		
포도품종	모스카토 100%		
알코올	5%	용량	750 / 375ml
등급	DOCG	시음 적정 온도	6-8℃
테이스팅 노트	살구나 복숭아와 같은 잘 익은 노란 핵과류의 강렬한 아로마가 허니써클, 자스민 등의 싱그러운 꽃 향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다. 이에 허브류의 세이지 노트와 과하지 않은 버블감, 파삭한 산미까지 더해져 전혀 단조롭지 않은 프리미엄 모스까또 다스띠를 완성하였다.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니볼레"는 이탈리아어로 '구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현 오너인 알베르또 끼아를로가 자신의 딸 이름을 "비앙카 니볼라(하얀 구름)"라고 지었을 만큼 이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30년 이상 모스까또 다스띠를 생산해오며 얻은 그들만의 모든 노하우를 집약해 1990년, 미껠레 끼아를로의 첫 니볼레 와인이 탄생하였다. 니볼레는 이탈리아 최초의 375 모스까또 다스띠였을 뿐만 아니라, 질보다는 양이 중시되었던 모스까또 다스띠 와인 산업에 처음으로 프리미엄 급의 퀄리티 모스까또 다스띠를 내보였다. 니볼레는 남향의 빈야드에서 재배된 모스까또만으로 양조된다. 미껠레 끼아를로는 손 수확(Hand Harvesting)을 기본으로 하며 압축된 공기를 이용한 압착 방식을 통해 품종 특유의 향기롭고 싱그러운 아로마가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포도즙을 낸다. 모스까또 다스띠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인 신선함을 위해서 니볼레의 모든 생산은 주문 직후 이루어지며 주문에 따라 일정 수량만 유통되기 때문에 언제나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Wine & Spirits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티파이드&디저트 와인] 부문 중 27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수상내역

2020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2점
2020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1점
2018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와이너리

1950년대부터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양조해 온 미껠레 끼아를로는 가야, 안티노리와 같은 그란디 마르끼의 주요 일원이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와인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1세대 수출 와이너리로서, 현재까지도 피에몬테 No.1 수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바르베라 다스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들의 탑 싱글 빈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부띠끄 와이너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과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로 와인 애호가들의 니즈와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피에몬테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이탈리아 DOC 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현재 법규 수준 이상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양조 기술을 도입한 생산자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